

병렬 구성에서의 생략에 의한 축약

고재설
(우석대학교)

Koh, Jae-Sol. 2000. Reduced forms in conjugated constructions. *Linguistics* 8-1, 39-58. When two nouns are conjugated, they can be reduced to a short form in some cases('선배(와) 후배' ==> '선후배'), and they cannot be in another cases('선생(과) 학생' ==> '*선학생'), if they have common morphem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the conditions of this kind of reduction. I argue in this paper that this reduction is conditioned structurally and semantically. The structural condition is that the two nouns must have the form [AX][BX]('선배(와) 후배') or [XA][XB]('국내(와) 국외'). The semantic conditions are more complicated and vague. The major conditions between AX and BX are oppositeness, similarity, consecutiveness, and separation relation. Whether the reduced forms can be considered to be words and listed in the lexicon is speculated also.(Woosuk University)

1. 문제의 제기

'선배(와) 후배'는 '선후배'로 축약될 수 있다. 나란히 이어지는 두 단어인 '선배'와 '후배'에서 '배'가 공통되는 요소이므로, 이를 생략함으로써 축약되는 것이다(이렇게 보게 되는 자세한 이유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선생(과) 학생'은, '생'이 공통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선학생'으로 축약될 수 없다. 또한 '국내(와) 국외'도 '국내외'로 축약될 수 있는 반면에, '교장(과) 교감'은 '*교장감'으로 축약될 수 없다.

이처럼 어떤 명사들이 병렬 구성을 이룰 때에 생략에 의한 축약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기제로 축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필자가 과묵한 탓인지, 아직껏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축약은 언어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구와 복합어

* 이 논문은 2000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mpound)의 구분 등에서 검증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그 축약형들이 단어로 여겨질 수 있는지도 궁금한 사항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룰 것인데, 논의의 대상은 주로 복합명사들이 될 것이나, 복합동사와 파생어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할 것이다.

2. 구 접속에서의 생략에 의한 축약

- (1) 가. 철수가 밥을 먹고, 철수가 승냥을 마셨다
 나. 철수가 밥을 먹고, e 승냥을 마셨다
 다. * e 밥을 먹고, 철수가 승냥을 마셨다¹⁾
- (2) 가. 철수가 검을 씹고, 영수가 검을 뺐었다
 나. 철수가 검을 씹고, 영수가 e 뺐었다
 다. *철수가 e 씹고, 영수가 검을 뺐었다
- (3) 가. 철수가 밥을 먹고, 영수가 떡을 먹었다
 나. *철수가 밥을 먹고, 영수가 떡을 e
 나'. 철수가 밥을 먹고, 영수가 떡을 그랬다
 다. 철수가 밥을 e , 영수가 떡을 먹었다

동일한 요소가 반복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가 생략되는 현상은 구의 접속에서 매우 빈번하다. (1), (2), (3)은 각각 반복되는 동일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동사를 생략해 본 것이다. 각각의 (나)에서는 후행하는 것을, (다)에서는 선행하는 것을 생략하였는데, (1, 2)에서는 (나)가, (3)에서는 (다)가 적격하다는 점에서 생략의 방향의 차이가 보이지만,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²⁾

1) 이 문장은, '밥을 먹고 나서, 철수는 물을 마셨다'처럼, 선행절을 부사절로 해석하면 잘 성립한다. 그러나 두 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접속된 것으로 해석할 때에 부적격하다.

2) 명사구나 또는 부사어가 포함된 동사구의 접속에서도 그 내부의 공통되는 성분들이 생략될 수 있는데, 아래 (1)에서는 공통되는 명사가, (2)에서는 공통되는 관형사가, (3)에서는 공통되는 부사어가 각각 생략된다.

(1) 이 책과 그 책과 저 책 ==> 이, 그, 저 책([이, 그, 저 {책}])

그런데 이렇게 동사와 동사 이외의 것들 사이에서 생략의 방향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구조적인 관계에서 어느 것이 핵(head)이고 어느 것이 핵이 아닌가 하는 점과, 동시에, 국어가 핵말(head final) 언어라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절의 내부 구조를 (4)로 보고, 핵은 동사라고 보면,

- (4) [VP 주어 [V' 목적어 [V 동사]]]
- (5) [VP 주어 [V' 목적어 [V 동사]], [VP 주어 [V' 목적어 [V 동사]]]
- (6) 가. [VP 주어 [V' 목적어 [V 동사]], [VP e [V' 목적어 [V 동사]]]
- 나. [VP 주어 [V' 목적어 [V 동사]], [VP 주어 [V' e [V 동사]]]
- (7) 가. *[VP 주어 [V' 목적어 [V 동사]], [VP 주어 [V' 목적어 [V e]]]]
- 나. [VP 주어 [V' 목적어 [V e]]], [VP 주어 [V' 목적어 [V 동사]]]

(5)처럼 두 개의 절이 접속되는 경우에, 주어나 목적어는 (6)처럼 후행의 것이 생략된다. 이미 언급된 것을 뒤에서 생략시키는 것이, 아직 언급되지 않은 것을 생략시켰다가 나중에 언급하는 것보다 문장 전체의 이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언어 사용상의 책략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을 동사에 적용하면, (7가)처럼, 결과적으로 문장 전체의 기능적 핵에 해당하는 요소들(선어말, 어말 어미)이 실현될 자리가 없게 된다(그러므로 (3나')에서 보는 것처럼 대동사라도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해/기억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선행하는 것을 생략하는 것이다.³⁾

-
- (2) 이 책과 이 연필 ==> 이 책과 연필([이 [책과 연필]])
 - (3) 가. 철수는 어저께 부산으로 떠났고, 영수는 어저께 광주로 떠났다 ==>
 철수는 어저께 부산으로 떠났고, 영수는 e 광주로 떠났다
 - 나. 철수는 어저께 부산으로 떠났고, 영수는 오늘 부산으로 떠났다 ==>
 철수는 어저께 부산으로 떠났고, 영수는 오늘 e 떠났다

한편, '*철수는 점심을 안/못 먹었고, 영수는 저녁을 e 먹었다'같은 문장에서는 후행하는 절에 부정사 '안/못' 등이 생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시간, 장소, 양태의 부사들은 반복될 때에 생략이 가능한 반면 부정사의 생략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접어두기로 한다.

3)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영어 등과 같은 핵선(head initial) 언어에서는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후행의 것이 생략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예측은 정확하다. (John ate an apple, and Mary e a pear.)

3. 파생어 병렬에서의 생략에 의한 축약

- (8) 가. 웃음(과) 울음 ==> *웃울음, 마개(와) 따개 ==> *막따개,
 뛰기(와) 걷기 ==> *뛰걷기, 울보(와) 재보 ==> *울재보
 나. 먹이(와) 먹보 ==> *먹이보, 놀이(와) 노래 ==> *놀이에
 (9) 가. 떡보(와) 밥보 ==> *떡밥보, 눈치(와) 코치 ==> *눈코치,
 비질(과) 걸레질 ==> *비걸레질, 육쟁이(와) 거짓말쟁이 ==>
 *육거짓말쟁이
 나. 맨손(과) 맨발 ==> *맨손발, 군소리(와) 군말 ==> *군소리말
 다. 손질(과) 손길 ==> *손질길, 피보(와) 피쟁이 ==> *피보쟁이
 (10) 가. 공자(와) 맹자 ==> *공맹자, 남자(와) 여자 ==> *남녀자
 나. 의자(와) 탁자 ==> *의탁자
 다. 작곡가(와) 작사가 ==> *작곡작사가
 라. 사업가(와) 정치가 ==> *사업정치가

파생어들이 병렬되는 구성에서는 동일한 요소가 반복되더라도 그것을 생략함으로써 축약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8)은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들의 병렬 구성인데, (가)에서는 공통되는 접미사가, (나)에서는 어근이 생략될 수 없다. (9)는 명사를 다시 명사로 파생시킨 예들인데, (가)에서는 공통되는 접미사가, (나)에서는 접두사가, 그리고 (다)에서는 어근이 생략될 수 없다.

(10)은 파생어라고 인정되는 한자어들의 병렬 구성에서도 공통되는 접미사가 생략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자(와) 맹자’는 줄여서 ‘공맹’이라고도 하고 ‘남자(와) 여자’는 ‘남녀’라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맹자’, ‘*남녀자’가 불가능한 것은 파생어의 병렬에서 공통 요소의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대표적인 접미사인 ‘-거리-’, ‘-대-’와 ‘-롭-’, ‘-스럽-’도, 아래 (11), (12)에서 보는 것처럼, 병렬 구성을 이룰 때에 생략될 수 없다.⁴⁾

4) 이런 점에서도, ‘하-’계의 동사와 형용사들을 파생어로 보는 견해는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가. 연구한다, 검토한다, 분석한다, 종합한다, 등

- (11) 가. 빈둥거리다, 전들거리다, 빈둥대다, 전들대다, 등
 나. *빈둥전들거리다, *빈둥전들대다, 등
- (12) 가. 신비롭다, 향기롭다, 사랑스럽다, 애교스럽다, 등
 나. *신비향기롭다, *사랑애교스럽다, 등

구의 접속에서는 동일한 요소의 생략이 매우 빈번하고, 복합어의 병렬에 서도 동일한 요소의 생략에 의한 축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반면에 파생어들의 병렬 구성에서는 동일한 요소를 생략하여 축약형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점은 어근과 접사의 차이 때문인 듯 하다. 즉, 어근은 자체로 (비록 어간처럼 문장에서 홀로 단어로 사용될 수 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의미의 단위인 반면에, 접사는 자체로 명확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여기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모호한 의 미를 지니기 때문으로 보인다.⁵⁾

4. 복합어 병렬에서의 생략에 의한 축약

복합어들이 병렬되는 구성에서는 반복되는 요소를 생략하여 축약형을 이

- 나. 연구검토한다, 분석종합한다, 등
- (2) 가. 고요하다, 잠잠하다, 건강하다, 씩씩하다, 등
 나. 고요잠잠하다, 건강씩씩하다, 등

(1가), (2가)는 흔히 파생어로 보기도 하는데, 각각 (1나)와 (2나)에서처럼 ‘하-’가 생략되면서 축약형을 이룰 수 있는 사실은 (8 -12)의 관찰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첫째, ‘하-’가 접미사이고 따라서 (1가)의 ‘연구한다’ 등이 파생 동사들이 고, (2가)의 ‘고요하다’ 등이 파생 형용사들이라면, 그리고 둘째, 국어에 ‘연구검토’, ‘분석종합’같은 복합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고요잠잠’, ‘건강씩씩’같은 복합어근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나)와 (2나)의 모든 예들은 부적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1 나)와 (2나)는 모두 적격하다. 따라서 앞의 첫째와 둘째 전체 가운데 어느 하나는 거 짓이어야 한다. 그런데 둘째의 전체는 참인 것으로 보이므로, 첫째의 전체가 거짓이 어야 하고, 따라서 ‘하-’는 접미사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1)과 (2)의 예 들을 구 또는 복합어로 보아야 한다(줄고(1996, 1999) 참조).

5) 접미사의 의미가 매우 모호한 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즉, ‘-이’가 ‘먹이’에 서는 ‘먹을’ 대상물’을 가리키나, ‘놀이’에서는 ‘(노는) 행위’를 가리키고, ‘-질’이 ‘지 게질’에서는 ‘(지게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나, ‘마당질’, ‘서방질’ 등에서 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을 각각 ‘-이1’, ‘-이2’ 그리고 ‘-질1’, ‘-질2’, ‘-질 3’처럼 별개의 접미사로 나누어 볼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접사의 의미는 어근의 의 미보다 훨씬 모호하다고 하겠다.

루는 것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즉,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인데, 구조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구조적 조건을 살펴보자. 동일한 요소를 지니는 두 개의 복합어가 병렬 구성을 이루는 방식은 이론적으로 (13 -16)의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3) [AX][BX] ==> ABX : 선배후배 ==> 선후배

(14) [XA][XB] ==> XAB : 수출수입 ==> 수출입

(15) [AX][XB] ==> *AXB

(16) [XA][BX] ==> *XAB/*ABX

이들 가운데 축약형이 잘 형성되는 것은 (13)의 구조에서이다. (14)의 구조에서는 매우 제한된 예들이 발견되고, (15)와 (16)의 구조에서는 축약형의 형성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병렬구성에서 축약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는 구조적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조건이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른 조건이란 의미적인 것이다.

의미적 조건은 다양한데, 대략 위의 AX와 BX의 A, B 사이에 대립, 유사, 연속, 분할의 의미 관계가 상정될 수 있는 경우에 축약형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13)의 구조를 갖는 것부터 차례로 논하기로 한다.

4.1 AXBX ==> ABX 구조

4.1.1 A, B가 의미상으로 대립 관계에 있을 때, AX와 BX는 대립어가 된다. 그리고 이런 두 개의 대립어가 병렬될 때에 AXBX ==> ABX로의 축약이 가장 잘 일어난다. A, B, X 각각에 해당되는 예도 다양하고, 축약형인 ABX의 수도 가장 많다.

(17) 가감법(加減法), 가감봉(稼), 가감속(速), 가감산(算), 가부결(可否決), 간만조, 강약자, 개폐관(開閉館), 개폐교(校), 개폐구간, 개폐막, 개폐문, 개폐시(市), 개폐식, 개폐업, 개폐점, 개폐정(廷), 개폐회, 경조사, 고저성(高低聲), 고저음(音), 고저조(調), 공사기업(公私企業), 공사립(立), 공사문서, 공사법, 공사비, 공사석, 공사용, 공사전(田), 파미속

(過未熟), 관민영(官民營), 길흉사(吉凶事), 길흉일(日), 길흉조(兆) 급
만성(急晩成), 남녀탕(男女湯), 남녀학교, 남녀동생, 남북극, 남북극
점, 남북녘, 남북단, 남북반구, 남북부, 남북조, 남북쪽, 남북회귀선,
남북한, 내외과, 내외근, 내외면, 내외부, 내외야, 내외야수, 내외자
(資), 내외직, 냉난방, 냉온수, 냉온천, 단복리, 단복수, 단복식, 단복
염, 대소로(路), 대소가(家), 대소국, 대소농(農), 대소문자, 대소변, 대
소사(事), 대소상(喪), 대소아(兒), 대소역(疫), 대소월(月), 대소인(人),
대소장, 대소절, 대소피, 대소형, 대차변, 도산매, 도소매, 동서독, 동
서반, 동서양, 동서유럽, 동서쪽, 동서편, 동식물, 등락세, 등하교, 등
하산, 문무관, 민형사, 본지점, 부빈국, 상하권, 상하급, 상하단, 상하
동(洞), 상하류, 상하반기, 상하반신, 상하부, 상하석, 상하수, 상하수
도, 상하원, 상하위, 상하의, 상하체, 상하층, 상하한선, 상하행, 상하
행선, 상하향, 상하현달, 선후수, 선후인, 선후걸이, 선후배, 선후불,
선후사, 선후수, 선후진(陳), 선후진(進), 선후책, 선후학, 송수신, 송
수화, 송수화기, 송수화자, 승제산, 승패자, 승하산, 승하차, 신구교,
신구석기, 신구세대, 신구약, 신구정, 애경사, 여야당, 예결산, 예결선,
예복습, 예본선, 요철면, 원근거리, 원근경, 원근해, 유무급, 유무료,
유무산, 유무상, 유무선, 유무성, 유무익, 유무임, 유무죄, 유무한, 유
무형, 이착륙, 이취임, 입출감, 입출고, 입출금, 입출력, 입출하, 입퇴
원, 장단거리, 장단기, 장단시간, 장단신, 장단음, 장단점, 장단조, 장
단편, 적서자, 전현직, 전후기, 전후반, 전후방, 전후임, 전후처, 정후
문, 조석간, 조석식, 준비칭, 좌우익, 좌우익수, 좌우측, 좌우파, 좌우
편, 주객관, 주객실, 주객체, 주야간, 중경상, 중감산, 중감액, 직간선,
직간점, 착발신, 청탁음, 청탁주, 출결석, 출입국, 출입항, 출퇴근, 친
원척, 한난류, 한양방, 흘짝수, 등

(17)은 AXBX의 A와 B에 해당되는 '가'와 '감', '개'와 '폐', '고'와 '저',
'공'과 '사' 등이 대립 관계에 있는 말들이다. 이들은 위에서 보듯이 ABX
유형의 축약형이 매우 많으며,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18) 가. 손발- ; 손발-가락, -금, -끝, -놀림, -등, -목, -바닥, -뼈, -일,
-자국, -장난, -장단, -재봉틀, -재주, -뜯, -뜯, -동작, -살, -
짓, 등

- 나. 위아래-; 위아랫-갈이, -넉, -누이, -니, -다리, -덧줄, -도리, -돌, -목, -사람, -집, -널, -동네, -마구리, -마을, -막이, -머리, -몸, -물, -배, -벌, -불, -사랑, -세장, -수염, -심, -입술, -잇몸, -자리, -조각, -집, -층, 등
- 다. 앞뒤-; 앞뒷-갈이, -개울, -걸음, -곤두, -그루, -길, -날, -날개, -다리, -대문, -동산, -동산, -들, -마당, -마디, -마을, -말, -맷시, -머리, -면, -모개, -모습, -모양, -목, -문, -바퀴, -발, -방, -밭, -밭, -사람, -산, -소리, -어금니, -일, -자락, -자리, -조각, -줄, -줄, -집, -집, -짱구, -짱구, -쪽, -차, -창, -채, -코, -태, -티, -팔뚝, -폭, -뜰, 등
- 라. 압수-; 압수 -강아지, -개, -거미, -것, -게, -고양이, -기와, -꽃, -나비, -나사, -놈, -단추, -닭, -당나귀, -들썩귀, -돼지, -막새, -말, -무지개, -벌, -범, -사슴, -소, -술, -은행나무, -줄, -치질, -코, -토끼, -포기, 등⁶⁾

(18)은 (17)과 동일한 유형의 축약형이 고유어 계통의 복합어들에게도 꽤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17)와 비교하면, 그 수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와 B의 다양성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손발’, ‘위아래/아래위’, ‘앞뒤’, ‘압수’ 등의 몇몇 단어들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런 점은 고유어들이 한자어들에 비하면 복합명사를 형성하는 유형이 단조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수의 복합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이다.⁷⁾

그런데 A와 B 사이에 의미상의 대립 관계가 상정된다고 해서 AXBX => ABX로 모두 축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여기에 제시된 예들의 표기는, 지면을 아끼기 위하여, 사이시옷과 ‘ㅎ’ 등을 무시하였다. 따라서 실제의 표기/발음은 제시된 것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7) 중국어가 고립어라는 사실이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많은 어근들이 단음절이며, 또한 그것들이 한문의 구성에서 어간의 자격을 동시에 갖고, 게다가 하나의 어근/어간이 동사, 형용사, 명사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므로,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복합어를 형성하기가 매우 용이한 것이다. 따라서 ‘대국(과) 소국’에서 ‘대소국’으로, ‘동산(과) 하산’에서 ‘동하산’으로 축약형을 형성하기가 용이하다. 대립 관계를 가장 명확히 보이는 단어들이 형용사, 동사라는 사실도 또한 간과될 수 없다. 반면에 국어는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 의존적이어서, ‘큰떡(과) 작은떡’이 ‘*크고작은떡’으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제약이 크다.

(19) *동서인천(cf. 동서독, 남북한)

(19)의 '*동서인천'은 동일한 방식의 '동서독', '남북한' 등이 적격한 것과 대조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즉, '동독'과 '서독'은 독일이 둘로 나뉘어 있을 때의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를 각각 가리키는 개념인 반면에 '동인천'과 '서인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동인천'도 있고 '서인천'도 있으나, 그것들은 인천을 대립적인 두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천의 여러 지역들 가운데 하나씩을 가리킬 뿐이다. 따라서 '동인천'과 '서인천'에서, 그 '동'과 '서'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나, '동인천'과 '서인천' 자체로는 전혀 어떤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동서인천'으로 축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⁸⁾ 굳이 '동인천'과 '서인천'을 함께 지칭해야 할 때에는 '동인천(과) 서인천'으로 병렬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상 (19)까지를 고려하면, AXBX ==> ABX의 축약형이 형성되려면, A와 B뿐 아니라, AX와 BX까지도 서로 의미상으로 대립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4.1.2 A와 B 사이에 의미상의 유사 관계가 있을 때 AX와 BX는 서로 유사한 뜻을 갖게 되는데, 그런 AX와 BX가 병렬되면 AXBX ==> ABX로의 축약이 잘 된다.⁹⁾

(20) 국공립, 금권력, 병의원, 병충해, 사상자, 신개축, 신증축, 읍면동장, 이미용사, 이미용업, 임직원, 재보궐선거, 주정차, 증개축, 통폐합, 판검사, 확포장, 등

8) 이 점에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 ==> '강남북'과의 차이가 보인다. '강남'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신시가지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강북'은 주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구시가지에 해당되는 곳을 가리킨다. 영등포구, 관악구, 강서구 등은 지리적으로 분명히 한강의 남쪽에 위치하지만,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크게 나눌 때에는 강북권에 해당되는데, 구시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강남'과 '강북'은 단지 한강의 남쪽과 북쪽이라는 위치상의 개념이 아니라, 서울을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대립되게 나누어 파악하는 개념인 셈이며, 따라서 '동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남북'으로 축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여기서의 '유사 관계'라는 용어는 A와 B 사이에 어떤 긴밀한 공통점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의미론에서 말하는 '유의 관계'와는 다르다.

‘국립’과 ‘공립’은 ‘사립’에 대립되는 ‘관립’이라는 점에서, ‘금력’과 ‘권력’은 정당하지 않은 힘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병원’과 ‘의원’은 병의 진료 기관이고, ‘병해’와 ‘충해’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생물적 재해이다. ‘사자’와 ‘상자’는 어떤 사고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며, ‘신축’과 ‘개축’과 ‘증축’은 건축물을 짓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읍장’, ‘면장’, ‘동장’은 행정 단위의 높이에서, ‘이용’과 ‘미용’은 손님의 머리를 매만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임원’과 ‘직원’은 육체노동에 대립되는 사무직 종사자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총선거’가 아닌, 사고시의 선거라는 점에서, ‘주차’와 ‘정차’는 차량의 운행을 멈춘 상태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통합’과 ‘폐합’은 대상 학교가 다른 학교에 편입된다는 점이 공통적이고, ‘판사’와 ‘검사’는 모두 ‘변호사’에 대응되는 관리이며, ‘확장’과 ‘포장’은 이미 있는 도로의 보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21) 술담배값¹⁰⁾(vs. *술과자값), 인문사회과학(vs. *인문자연과학), 금은값(vs. *금쇠값), 금은광(vs. *금철광), 쌀보리 농사(vs. *쌀밀 농사), 농어촌(*농산촌), 등

(21)은 (20)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슷한 관계로 인식되는 말이다. ‘술’과 ‘담배’는 그 두 물질 자체로는 전혀 관련이 없으나, 남자들이 가장 흔히 즐기는 것으로서, 심리적으로는 어떤 긴밀한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축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되게 축약이 불가능한 ‘*술과자값’은, ‘술’이 성인들이 즐기는 것이라면 ‘과자’는 주로 어린이들이 즐기는 것이어서 서로간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축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인문사회과학’과 ‘*인문자연과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금은’, ‘쌀보리’에도 각각 가장 귀중한 것과 그 다음으로 귀중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에 축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금철광’, ‘*쌀밀 농사’ 등에서는 ‘철’과 ‘밀’이 각각 선행하는 ‘금’이나 ‘쌀’과 견주어 훨씬 중요성이 적다고 여겨지므로 축약형이 형성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과 ‘어촌’은 도시에 대응되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라는

10) ‘술담배꾼’은, 접미사를 포함하는 단어들이 축약이 안 된다고 보았는데, 적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은 ‘술꾼’과 ‘담배꾼’을 별개의 사람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술담배를 즐기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술담배]-꾼]의 구조를 갖는 것이며, 우리의 논의에 대한 반증례가 되지 못한다.

점에서 비슷한 관계로 인식되나, '산촌'의 경우에는 그 '산'이 '농촌'의 '농'이나 '어촌'의 '어'와는 달리 단지 '촌'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을 가리키므로 '*농산촌', '*산어촌' 등의 축약형이 형성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1.3 A와 B 사이에 의미상의 어떤 연속적인 관계가 있을 때 AX와 BX는 연속되는 개념을 나타낸다. 이런 AX와 BX가 병렬될 때에도 AXBX ==> ABX로의 축약이 꽤 일어난다. 이런 예들의 A, B 및 X에는 몇 가지가 있다.

- (22) 수적인 연속성; 일이루, 이삼류, 이삼중, 삼사각형, 초재선(의원), 재삼선(의원), 등
- (23) 시간적 연속성; 상고대, 근현대, 토요일, 영유아, 유소년, 청소년, 청장년, 장노년, 예본결선, 예결심, 초중고등학교, 초중순, 중하순, 상중하순, 등
- (24) 공간적 연속성; 연근해, 원근연해, 등
- (25) 사회적 연속성; 장차관, 총확장, 통반장, 주부심, 주부업, 등

(22)는 수적인, (23)은 시간적인, (24)는 공간적인, 그리고 (25)는 사회적인 (즉, 높낮이나 우선 순위 등) 연속 관계 때문에 축약형이 잘 형성되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특히 (22)의 경우에는 해당 축약례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일이월', '이삼월', '삼사월', '사오월'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이렇게 하여 예의 수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형의 다양성을 늘어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17)에서 본 대립 관계에 비하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3 - 25)의 예들에서는, 예의 수를 늘이는 것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데, 특히 수나 시간적인 연속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병렬될 때에는 반드시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예들이 있으나(26), 대부분의 경우에는 축약형이 형성되지 못한다(27).

- (26) 일삼류, 일삼류, 월수금요일, 이사류월, 등
- (27) *초삼선(의원), *초하순, *고현대, *유청년, *청노년, *장소년, *중대 학생, *초고등학생
- (28) 초중순(vs. ?상중순), 상중하순(vs. ?초중하순)

(28)은 회한한 예들이다. 단지 각각의 A, B에 해당되는 요소들의 의미적 관계만을 따진다면 '?상중순'이 어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어색하고, '초중순'이 가능하다면 그 연장선에서 '?초중하순'이 자연스러워야 할 듯한데도 '상중하순'으로 실현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먼저, '초순', '중순'이 각각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다음 절에서 다룰 '상중하' 관계와는 다르고, 따라서 '상중순'이 어색하고, 반면에 '상중하순'의 경우에는 '중'과 '하'와의 인력에 끌려 '초중하'보다는 '상중하'가 자연스러우므로 '상중하순'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4.1.4 AX와 BX 사이에 전체 집합의 분할 관계가 성립할 때에 $AXBX \Rightarrow ABX$ 처럼 축약이 된다. 이 경우에는 A와 B 사이에 분할의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고, A와 B 자체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29) 국공사립, 등초본, 상중하급, 상중하등, 상중하류, 상중하수도, 상중하순, 상중하책, 상중하품, 등

(30) 수젓가락, 영호남, 책걸상, 투개표, 투표수, 등

(29)는 하나의 집합으로 인식되는 것들을 둘 또는 셋으로 분할한 것이다. 즉, '국공사립'은 학교 따위의 전체 집합을 셋으로 나눈 것이며¹¹⁾, '등초본'은 주민등록 따위의 기록에서 '원본'에 대조되는 '사본'을 다시 분할한 '등본'과 '초본'을 함께 가리킨다. '상중하X'류의 예가 다른 것들에 비하여 많은데, 분할이 셋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흔히 쓰이는 말이다. (30)에서는, 선행하는 A와 B 사이에 아무런 의미적 관계가 상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AX와 BX 사이에 전체 집합의 분할 관계가 성립되면 ABX로 축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수젓가락'은 식사 도구인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가리키고, '영호남'은 남부 지방으로서의 '영남'과 '호남'을 함께 지칭하며, '책걸상'은 '책상'과 '걸상'이라는 세트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투표수'에서

11) 우리는 '공사립'을 대립 관계로, '국공립'을 유사 관계로 본 바가 있다. '국공사립'이 학교 따위의 전체집합을 셋으로 분할한 것이라면, 전자는 그 전체집합을 둘로 분할한 것이며(보다 정확히 표현하고자 하면 '관사립'이 더욱 적절할 것인데, '관'이라는 말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므로 이런 표현이 쓰이지 않는 듯하다), 후자는 그 전체집합 '국공사'의 부분집합 '관'을 다시 '국'과 '공'으로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함께 지칭하는 개념인데, 동일한 대상 집합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관계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의 '투'와 '포'는 대립 관계로 볼 수도 있으나, '투개표'에서의 '투'와 '개'는 대립 관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짝(pair)을 이루는 말들이 병렬되어 축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²⁾

4.1.5 제한 조건으로, AX와 BX가 자체로 대립, 유사, 연속의 관계에 있더라도, AX나 BX가 어휘화를 겪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A와 B 사이에 동일한 관계가 상정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AXBX ==> ABX로의 축약이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우리가 살핀 것은 AXBX ==> ABX로의 축약이 비교적 잘 되는 것들이 어떤 유형의 것들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A와 B 사이에 대립, 유사, 연속, 분할의 의미 관계가 성립할 때였는데, 그런 관계가 상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¹³⁾ 그런데, '선생(과) 학생'의 경우에는 AX와 BX 사이에 대립 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축약이 불가능하다.

(31) 선생(과) 학생 ==> *선학생(vs. 선생(과) 후생 ==> 선후생(先後生))

12) '책걸상'과 대조되게 '*의탁자' 또는 '*탁의자'가 불가능한데, 그 기물들 자체로는 '책걸상'과 동일한 관계이나 접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동일 요소의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3) 대립, 유사, 기타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서 모두 축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아니다.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예는 무한히 많을 것인데, 유형별로 몇 개씩만 나열하기로 한다.

- 대립관계; 양복(과) 한복 ==> *양한복, 산딸기(와) 발딸기 ==> *산발딸기, 등
- 유사관계; 옷장(과) 이불장 ==> *옷이불장, 소주집(과) 막걸리집 ==> *소주막걸리집, 등
- 연속관계; 이장(과) 반장 ==> *이반장, 중대(와) 소대 ==> *중소대, 등
- 분할관계; 의사(와) 간호사 ==> *의간호사, 검찰(과) 경찰 ==> *검경찰, 등
- 특별한 관계 없음; 옷솥(과) 구둣솥 ==> *옷구둣솥, 연탄불(과) 장작불 ==> *연탄장작불, 등

그런데, '햇빛(과) 달빛'은 '*해달빛'이 부적한 반면, '햇빛(과) 달빛(과) 별빛'은 '해달 별 빛'으로 축약이 가능하고, '개밥(과) 고양이밥'은 '*개고양이밥'이 부적적인 반면, '개밥(과) 고양이밥(과) 봉어밥'은 '개 고양이 봉어 밥'이 가능한 것이 재미있다. 여러 개의 복합명사들이 나열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복합명사들을 속격 구성으로 인식하여, 그 구에서 축약형을 만들어내는 듯하다. 즉, '[[해(와) 달(과) 별]의 빛]', '[[개(와) 고양이(와) 봉어]의 밥]' 등처럼.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AXBX의 구조적 조건을 만족시키며, 또한 AX와 BX가 의미상으로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나, 그 A와 B 사이에는 대립, 유사, 연속, 분할의 어떤 관계도 갖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즉, '선생'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송철의(1992)에서 말하는) 의미론적 어휘화를 겪은 것인데(그러므로 '선'과 '생'의 의미로부터 '선생'의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런 어휘화는 축약에 대한 제한 조건이 된다.

이런 제약은 구의 접속 구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보통의 구와 관용구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성분 중에 동일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생략이 불가능하다.

- (32) 가. *철수는 우물에서 손을 씻었고, 영수는 도박판에서 e 씻었다
 나. *철수는 은행에 발을 들여놓았고, 영수는 은행털이에 e 들여놓았다

4.2 XAXB ==> XAB의 구조

XAXB ==> XAB 유형의 축약은 별로 활발하지 못하다. 몇몇 예가 있으나, 그 수가 적고, 또한 A, B, X의 유형도 매우 제한적이다.

- (33) 남북; 강남북,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 등
 (34) 내외; 국내외, 권내외, 교내외, 대내외, 시내외, 실내외, 옥내외, 원내외, 학내외, 등
 (35) 등락; 급등락, 반등락, 폭등락, 등
 (36) 전후; 식전후, 직전후, 등
 (37) 출입; 반출입, 세출입, 수출입, 전출입, 지출입, 등
 (38) 급; 급증감, 급등락, 급상승하강, 등

이상 (33 - 38)이 쉽게 발견되는 XAXB에서 XAB로 축약된 예들이다. 물론 이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 더욱 추가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앞에서 살핀 AXBX에서 ABX로 축약된 것들과 비교해 보면 그 수와 다양성에서 크게 차이가 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위의 예들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그 후행의 성분인 '남북', '내외', '등락', '전후',

‘출입’ 그리고 ‘증감’, ‘상승하강’ 등이 자체로 복합어라는 점이다. 따라서 XAXB가 XAB로 축약되려면 그 AB가 자체로 복합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데, ‘영동(과) 영서’가 ‘?영동서’로 축약되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39) 월남(과) 월맹 ==> *월남맹(vs. 남북한, 동서독)
 교장(과) 교감 ==> *교장감(vs. 장차관, 총학장)

베트남이 분단되어 있을 당시, 지구상의 분단국들 가운데 ‘남한(과) 북한’, ‘동독(과) 서독’은 각각 함께 지칭할 필요가 많았고, 그런 이유로 이들을 축약한 ‘남북한’, ‘동서독’은 쉽게 형성되었다. 그런데, ‘월남(과) 월맹’도 함께 지칭할 필요가 마찬가지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월남맹’같은 축약형이 생겨나지 않았다.¹⁴⁾ ‘교장(과) 교감’도 ‘장관(과) 차관’, ‘총장(과) 학장’ 등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장차관’, ‘총학장’ 등과 달리, 결코 ‘*교장감’으로 축약되는 일이 없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XAXB에서 XAB로 축약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 듯하다. 앞에서 우리는 AXBX에서 ABX로의 축약을 가장 잘 이루는 것은 그 A와 B가 대립 관계에 있을 때임을 본 바가 있는데, 이런 원리는 XAXB에서 XAB로의 축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하다. 그렇게 본다면, (33 - 38)의 예들에 대해서는 XAXB에서 XAB로의 축약이 AXBX에서 ABX로의 축약보다 제한적이나 그래도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고, (39)에 대해서는 그 ‘남’과 ‘맹’, ‘장’과 ‘감’ 등이 각각 자체로 아무런 의미적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보더라도 ‘?영동서’는 계속 문젯거리로 남으나, 이것은 언제라도 하나의 축약형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3 기타의 구조에서

14) 중국과 대만도 분단국이다. 따라서 이 두 나라도 함께 지칭할 필요가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큰데, 그럴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은 ‘양안(兩岸)’이다. 공통점이 전혀 없는 ‘중국’과 ‘대만’이라는 두 단어를 축약할 방법이 없으므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안 관계’, ‘양안 사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월남(과) 월맹’의 경우에는 ‘양안’ 등과 유사한 다른 표현도 마땅한 것이 고안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원래의 병렬형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40) [AX][XB]; 가. 수캐(와) 개고기 ==> *수캐고기
나. 학교(와) 교가 ==> *학교가
- (41) [XA][BX]; 가. 개밥(과) 암캐 ==> *개밥암/*밥암캐
나. 학교(와) 통학 ==> *교통학/*학교통

(40)과 (41)의 (가), (나)는 각각 고유어와 한자어의 복합명사들의 예인데,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인 요소를 생략할 수 없다. ‘*수캐고기’의 경우, ‘수캐의 고기’라는 뜻으로는 물론 적격할 수 있으나 그것은 명백히 속격 구성에서의 축약이어서 병렬 구성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고,¹⁵⁾ ‘수캐(와) 개고기’라는 뜻으로는 부적격하다. ‘학교(와) 교가’도 축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예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AXXB, XABX 구조에서는 축약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쉽게 파악된다. 즉, (40)의 경우, 핵도 다르고 수식 성분도 서로 다른 두 개의 복합어들이 단지 병렬되었을 경우, 선행하는 것의 핵과 후행하는 것의 수식 성분이 우연히 동일하다고 하여 이들 동일한 요소를 생략하는 것은 의미 해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5. 구조와 형성

5.1 선후배의 구조

‘선후배’처럼 ABX로 축약되는 단어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이 반복되는 동일한 요소를 생략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곧 ‘선후배’에 아래의 (42)와 같은 구조를 상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43)의 구조를 상정할 수는 없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자.

(42) [[선e][후배]]

(43) [[선후]배]

‘선후배’를 (42)의 구조로 보는 것은, 그 형성을 구의 접속형에서 동일한 요소가 생략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렇게 볼

15) 마찬가지로 ‘학교 교장’도 물론 ‘학교장’으로 축약될 수 있으나, 이것도 ‘학교의 교장’이라는 속격 구성에서의 축약형이다.

때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앞에서 살핀 구의 접속형에서의 생략과는 달리, 아래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상(과) 밥상' 등 많은 복합어들의 병렬형에서 '*책밥상'처럼 축약이 불가능한 사실이다. 즉, 구의 접속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략이 진행된다면, '책상(과) 밥상'에서도 그 '상'이 동일하므로, 이들도 '*책밥상'으로 형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선후배'에 (43)과 같은 구조를 상정하면 이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책밥' 같은 복합어가 국어에 없고, 따라서 '*책밥상'같은 복합어도 형성될 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3)의 구조를 상정할 수는 없는데, 아래 (45)의 '과미숙', '도산매'같은 축약형들에서, '*과미', '*도산'같은 복합어는 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44) 책상(과) 밥상 ==> *책밥상, 눈물(과) 콧물 ==> *눈콧물

술잔(과) 찻잔 ==> *술찻잔, 촛불(과) 등불 ==> *초등불

백지(와) 먹지 ==> *백먹지, 밥그릇(과) 국그릇 ==> *밥국그릇

(45) 과미숙(*과미), 도산매(*도산), 도소매(*도소), 민형사(*민형), 본지점(*본지), 송수신(*송수), 승계산(*승계), 예복습(*예복), 예본선(*예본), 이착륙(*이착), 이취임(*이취), 입퇴원(*입퇴), 직간선(*직간), 책걸상(*책걸), 출퇴근(*출퇴), 투개표(*투개), 투포수(*투포), 등

의미 해석과 관련지어 보더라도 (42)의 구조가 옳은 듯하다. '선후배'는 '선배와 후배'라는 뜻이지 '선후의 배'라는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선후배'의 구조를 [[선e][후배]]로 본다면, 동일한 구조를 갖는 구성들이 나란히 병렬된다고 하여 언제나 생략에 의한 축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어들의 병렬에서의 생략과 구의 접속에서의 생략이 차이점을 보인다. 후자가 통사적 절차에 의한, 언제든지 가능한 생략이라면, 전자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통사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제로 축약형이 형성될까? 병렬형의 사용의 빈번함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야 할 것이다. 즉, 주어나 목적어 등의 자리에 AXBX 처럼 병렬형이 자주 쓰일 경우에, 발음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원리에 따라 동일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생략되는 것으로. 그런데, AXBX 유형의 병렬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등의 위치에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그 AX와 BX가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이며, 그 의미상의 관련성이 바로

우리가 이미 살핀 대립, 유사, 연속, 분할의 의미 관계로 이해되는 것이다. AX와 BX가 의미상의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가끔 AXBX처럼 병렬형이 사용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축약형이 형성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5.2 생략의 방향과 구조

AXBX가 ABX로 축약될 때, 그 동일한 요소인 X를 각각 X1과 X2로 구분하여 보자. 그러면 AXBX는 곧 AX1BX2의 구성이 된다. 여기에서 생략이 되는 것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X1이며, X2가 생략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구의 생략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어의 핵말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즉, X1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X2가 계속 핵으로서 축약형의 맨 뒤에 남아 있게 되므로, AXBX 구성 전체의 핵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반면에 만약 X2가 생략된다면, 결과적으로 AXB의 모양이 되어, 자칫 B 또는 XB가 구성 전체의 핵으로 잘못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런 방식의 생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XAXB 형의 형성이 극도로 제한적인 이유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 축약을 적용하면 전체 구조는 XAB만이 남게 되는데, 이는 자칫 B 또는 AB를 구성 전체의 핵으로 이해하게 하며, 그런 경우에는 전체 병렬형의 뜻이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방식의 축약형은 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5.3 축약형은 단어인가?

XAXB 병렬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가 아니며, 따라서 사전에 등재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 ABX로의 축약형은 사전에 등재될 필요가 있을까? 현재의 사전들에서 이 문제는 일관성 없이 다루어지고 있다. 즉, ‘동지선달’, ‘책걸상’ 등의 어떤 예들은 등재되어 있으나, 많은 예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 축약형이 통사적 기제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도 당연히 단어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AX와 BX의 A, B 사이에 대립, 유사, 연속, 분할의 의미 관계가 있을 때에 축약형이 잘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병렬

형들이 축약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그런 의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들은 병렬형은 거의 축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한 AX와 BX 가운데 어휘화를 겪은 것들이 있어도 축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렇게 축약형들이 단어로 여겨진다고 해서 그 모든 축약형들을 사전에 등재할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는, Aronoff(1976)에서 완전히 생산적인 규칙으로 형성되는 파생어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재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축약형을 단어로 인정하는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대립, 유사, 연속, 분할의 의미 관계에 있는 AXBX 병렬형들이 대체로 축약을 잘 허용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생산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면, 이는 꽤나 생산성이 높은 단어형성 규칙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으나, 역시 사전에 등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일이월, 이삼십 등과 같은 수적인 연속성을 갖는 것들은, 완전히 생산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등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 마무리

처음에 우리는 접속된 두 구에 동일한 요소가 있을 경우 그것의 생략이 매우 자유로움을 관찰하고, 반면에 두 개의 파생어가 병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요소의 생략에 의한 축약이 불가능함을 보았다. 다음으로 복합어들이 병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요소의 생략에 의한 축약이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덜 이루어지며,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 복합어들의 병렬형에서 동일한 요소가 생략되어 축약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첫째, AXBX 형의 복합어 병렬형은 ABX 형으로 축약이 잘 되나, XAXB 형은 축약이 매우 제한되며, AXXB, XABX 유형의 병렬에서는 생략에 의한 축약이 불가능하다.

둘째, AXBX 형의 병렬형이 축약이 잘 되는 것은 A와 B 사이에 대립, 유사, 연속, 분할의 관계가 성립될 때이다(이와 같은 의미적 관계는 물론 배타적인 것은 아닌데, 그 관계들 가운데 두세 곳에 해당되는 예들의 경우에는 축약이 더욱 잘 일어난다).

셋째, 이런 축약형의 형성은 통사적 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며, 비규칙적

인 경향이다.

넷째, AX, BX는 모두 어휘화 등을 겪지 않은 복합어들이어야 한다.

다섯째, 동일 요소의 생략에 의하여 형성되는 축약형은 단어로 보아야 하며, 사전에 등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재설. 1996. "형용사 '하-'에 대하여", 언어학, 4, 25-44, 대한언어학회.
고재설. 1999. "동사 '하-'와 형용사 '하-'", 국어학, 33, 145-175, 국어학회.
김광해. 1990.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재검토", 국어학, 20, 28-46, 국어학회.
김완진. 1970. "문접속의 '-와'와 구접속의 '-와'", 어학연구, 6-2, 1-10, 서울대 어학연구소.
노대규. 1982. "국어의 복합어 구성법칙", 인문논총(한양대), 4, 5-26.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서울: 태학사.
채 완. 1985. "병렬의 어순과 사고방식", 국어학, 14, 463-477, 국어학회.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565-701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65-701